

즉시 배포용: 2019년 4월 10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폭탄 처리반 훈련인 '레이븐 챌린지(RAVEN'S CHALLENGE)'의 뉴욕
귀환 발표**

*오리스크اني의 대비 훈련 센터(Preparedness Training Center)로 지역, 주, 연방 및 국제
폭탄 처리반을 데려오는 세계 최대 규모의 폭탄 처리반 훈련 연습*

Cuomo 주지사는 오늘, 오리스크اني의 뉴욕주 대비 훈련 센터(Preparedness Training Center)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폭탄 처리반 및 군 폭발물 처리팀 훈련 행사인 2019년 레이븐 챌린지(2019 Raven's Challenge)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국 네 곳에서 열리는 이 연례 행사는 폭탄 기술자들에게 대중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자체 제작한 폭발물의 위협에 대처하는 방법을 훈련합니다. 올해 연습에는 북동부, 캐나다 및 유럽에서 온 폭탄 처리반이 참가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공 안전은 우리의 최우선 과제이며, 우리의 긴급상황 대처자들이 가능한 최고 품질의 연습과 훈련을 이용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뉴욕이 다시 레이븐 챌린지(Raven's Challenge)를 개최하게 되어 자랑스럽고, 모호크 밸리에 있는 우리의 세계적인 대비 훈련 센터를 방문한 전 세계의 긴급상황 대처자와 사법 집행 기관을 환영합니다."

미국 주류, 담배, 화기 및 폭발물 단속국(Bureau of Alcohol, Tobacco, Firearms and Explosives, ATF)과 국립 폭발 훈련 및 연구 센터(National Center for Explosives Training and Research)가 이끄는 2019년 레이븐 챌린지(2019 Raven's Challenge)는 3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미국 전역의 네 곳에서 열립니다. 뉴욕주 대비 훈련 센터(Preparedness Training Center)에서 세 번째로 행사를 개최하는 것 외에도, 콜로라도, 플로리다 및 인디애나에서도 연습이 진행됩니다. 일주일의 연습 기간 동안, 팀들은 현재의 위협적인 환경을 염두에 두고 개발된 시나리오 기반의 연습에 참여합니다.

레이븐 챌린지(Raven's Challenge) 동안에, 다양한 사법 집행 기관과 군사 기관에서 온 100명 이상의 폭탄 기술자들이 시나리오 기반 훈련에 참여합니다. 여기에는 미국 비밀경호대(United States Secret Service)가 조율하는 고위관리 보호 소탕, 드론으로 떨어뜨리거나 튜브로 투사될 수 있는 3D 인쇄 수류탄과 관련된 상황 및 엑스레이 중에 적발되는 폭발 장치를 포함하는 법원 검문소 현장이 포함됩니다.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 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의 Patrick A. Murphy 커미셔너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이븐 챌린지(Raven's Challenge)는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그들의 삶을 헌신하는 폭탄 기술자들에게 귀중한 훈련을 제공하며, 이런 연습을 개최하는데 뉴욕주 대비 훈련 센터(Preparedness Training Center)보다 더 좋은 장소는 전국에 없습니다. 이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다시 뉴욕을 선택한 것뿐만 아니라 해를 입히려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새롭게 등장한 전술의 위협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과 모범 사례를 공유한 연방 파트너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주류, 담배, 화기 및 폭발물 단속국(ATF), 레이븐 챌린지 상호운용 연습(Raven's Challenge Interoperability Exercise)의 프로그램 매니저인 John Simpson 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와 레이븐 챌린지(Raven's Challenge) 프로그램을 이끄는 주류, 담배, 화기 및 폭발물 단속국(ATF) 간의 오랜 파트너십이 5년 만에 3번째로 재결합하여 환상적인 결과를 낼 것입니다. 올해의 두 번째 장소인 뉴욕주 대비 훈련 센터(Preparedness Training Center)에서의 연습은 완전하게 득 찻으며, 폭탄 기술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종류의 고급 훈련에 대한 요구를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레이븐 챌린지(Raven's Challenge)는 2004년 시애틀에서 군 폭발물 처리팀과 공공 안전 폭탄 처리반을 위한 주류, 담배, 화기 및 폭발물 단속국(ATF) 주도의 훈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이 훈련은 폭발물 처리팀과 폭탄 처리반을 위한 현재 세계에서 최대의 훈련 연습으로 발전했습니다. 레이븐 챌린지(Raven's Challenge)는 미국 육군(U.S. Army)의 자금 지원을 받으며, 주류, 담배, 화기 및 폭발물 단속국(ATF)과 미국 국토안보국(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주 및 지방 사법 집행 기관을 포함한 협력 기관에 의해 편성됩니다.

뉴욕주 대비 훈련 센터(Preparedness Training Center) 소개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 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에서 운영하는 뉴욕주 대비 훈련 센터(Preparedness Training Center)의 방대한 훈련 장소는 폭탄 처리반과 개를 동반하는 팀들에게 현실적인 환경에서 훈련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뉴욕주 대비 훈련 센터(Preparedness Training Center)의 1,100 에이커에 달하는 훈련장은 45,000 제곱피트의 모의 도시, 주택 단지, 붕괴된 건물 파편 더미, 삼림 지대 구조물, 기차 차량 및 기타 환경이 포함됩니다. 현재 13년을 맞이하는 뉴욕주 대비 훈련 센터(Preparedness Training Center)는 매년 사법 집행 기관, 응급 의료 서비스 및 기술 구조 인력을 포함한 수천 명의 뉴욕주 긴급상황 대처자들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소개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 \(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은 테러, 천재, 위협, 화재 및 기타 비상 상황 발생 시 이를 예방하고, 이로부터

보호하고, 대비하고, 대응하고, 복구할 수 있는 활동을 위해 리더십, 공조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페이스북](#) 방문, [@NYSDHSES](#) 트위터 팔로우 또는 [dhSES.ny.gov](#) 를 방문하십시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